



Hello, I am Sister Ann Patrick Adams. I was born in Altoona, the eighth of nine siblings. My family moved to Cleveland, Ohio to join my father where he had found employment.



My mother took seven of us by train to Cleveland. In 1943, this trip took all day! I started to first grade at the Cathedral School in Altoona, but my education was completed in Catholic Schools in Cleveland. I was taught by our community for only two months. My oldest sister entered the Sisters of Charity when I was in sixth grade. Many of our sisters know or met Sister Marian Joseph when she taught English Conversation Classes at St. Joseph High School in Gangjin. She has been my inspiration and best friend all my life.



When I was in High School, a Sister of Notre Dame, one of my teachers, gave me a book to read. It was Happy Memories of a Sister of Charity!

I entered our community on September 8, 1956, made my First Profession 1959 and Final Profession in 1964. I have always loved working with little children, so I was thrilled to be assigned to teach primary grades, which I did for 31 years in the schools which we staffed in the states of Arizona and California.



In 1988, I offered to fill a position as Principal at SS. Peter & Paul School in Tucson, Arizona. I remained there until 2005 when Sister Vivien asked me to return to Korea. I had been missioned to Korea for the 1995–96 school year and loved the experience! I have always enjoyed teaching, but I really loved those eight years in Korea!

Since I returned to the United States in 2012, I have been volunteering at Caritas Christi at the Reception Desk and since 2014 I arrange transportation for the Sisters' doctor appointments.



안녕하세요! 앤 패트릭 애덤스 Ann Patrick Adams 수녀입니다. 저는 아홉 남매 중 여덟째로 알투나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오하이오주 클리블랜드Cleveland에 직장을 구하시면서 클리블랜드로 이사를 했습니다. 어머니는 아이들 일곱 명을 데리고 클리블랜드까지 기차를 타고

갔지요. 1943년이었는데 당시에는 알투나에서 클리블랜드까지 하루 온종일 걸리는 여행길이었습니다. 알투나 성 요한 대성당 학교에 1학년으로 입학은 했지만 단 두 달만 씨튼 수녀님들에게 배우고 나머지는 클리블랜드에 있는 여러 가톨릭 학교를 다녔습니다.

첫째 언니가 제가 6학년 때 우리 수녀회에 입회했습니다. 많은 수녀님이 알고 있기도 하고 만나기도 한 메리앤 조셉Marian Joseph 수녀님이에요. 강진 성 요셉 고등학교에서 영어 회화를 가르치셨지요.

고등학교에 다닐 때 선생님 중 한 분이셨던 노틀담 수녀회 수녀님이 저에게 책을 한 권 읽어보라고 주셨습니다. 그 책이 바로 『사랑의 수녀의 행복한 추억Happy Memories of a Sister of Charity』이었습니다.

마침내 1956년 9월 8일에 입회해서 1959년에 첫서원을 하고 1964년에 종신서원을 했습니다. 어린이들과 함께하는 일을 항상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교사로 파견을 받고 정말 기쁘고 신이 났습니다. 애리조나주와 캘리포니아주에 우리 수녀님들이 가르치는 학교에서 31년 동안 학생들을 가르쳤습니다.



1988년에는 애리조나주 투산의 성 베드로와 바오로SS. Peter & Paul 학교 교장직을 맡게 되었고 2005년에 한국에 다시 갈 때까지 교장으로서 사도직을 했습니다. 그전에 1995년에서 1996년까지 한국으로 파견을 받아 학교에서 가르쳤고 그때 체험이 정말 좋았습니다. 가르치는 일은 언제나 즐거웠지만, 한국에서 가르친 8년은 정말 좋았어요!

2012년에 미국으로 돌아온 이후로 까리타스 크리스티의 안내실에서 봉사하고 있고, 2014년부터는 수녀님들의 병원 진료를 위한 차량을 조율하고 계획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